

# 불황 속 대학입시 판도 변화

## 광주·전남 대학 정시모집 눈치작전 극심할 듯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대학입시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보다 다른 지방대를, 시립대보다는 국립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몰리는 현상이 예년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내년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고교 2학년생들이 올해 수험생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수를 피해 하향 안전지원을 하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23~24일 막판 눈치작전이 국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4시 현재, 전남대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대1로 접수인원(2천842명)이 모집인원(2천841명)을 겨우 넘어서 있다. 조선대 0.7대1, 목포대 0.95대1, 순천대 0.88대1 등으로 24일 접수를 마감하는 다른 지역대학들은 아직 경쟁률 1대1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역시 국어교육학과의 경우 마감

두 시간 전 0.95대1이었던 경쟁률이 마지막에 수험생이 몰리면서 6.5대1로 치솟는 등 눈치작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줬다.

광주 대광여고 마제일 진학부장은 “하향지원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아서 눈치작전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경제상황과 맞물려 하향지원 추세가 감지되고 특히 처음 상담할 때 수도권 대학을 원했던 학생들도 부모님과 상의한 뒤 지방대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때문에 우수학생들을 빼앗기지 않

기 위해 사립대가 대규모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 것도 변수다. 조선대는 올해 신설한 ‘CU리더’ 장학금제도 시행을 위해 60억원을 준비해뒀다.

석산고 정현 진학부장은 “광주고 대에 원서를 접수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업이 대학 선택에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는 남학생도 늘고, 물리치료나 임상병리 등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전통적인 강세 학

과인 사범대나 교대 계열 진학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영문과나 수학과 진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직을 이수할 수 있고, 대학졸업 후 학원 강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이점 때문이다.

송원고 박연종 진학부장은 “마감이 돼야 알겠지만, 전남대 공대 경쟁률이 농생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일단 등록금이 싼 국립대에 입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지역에서도 목포대나 순천대 등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 조선대 세번째 긴급처리사무권 발동

지난 7월초부터 6개월 째 이사진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 법인이 긴급처리사무권을 발동, 세 번째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조선대 법인은 “내년 학사일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김용재 전 이사장 등 직원 임시이사 5명이 참석하는 긴급이사회를 23일 오후 2시에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긴급이사회에서는 ▲조선대·조선간호대·조선이공대 교원 임용 ▲조선대·조선이공대 2009학년도 1학기

교원채용계획 승인 ▲병원 화장실 공사 계획 승인 등 15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정이사 선임을 자꾸 미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긴급처리사무권 발동이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를 맞는다”며 “임시이사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대학안에 영화관·쇼핑몰 들어선다

### 내년초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협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입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시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종교·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의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협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입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지자체 안일 행정에 야생동물 수난

### 멧비둘기·꿩 등 유해 조수 규정…마구잡이 포획 불러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야생동물이 마구잡이로 포획되고 있다.

영암군유역환경청은 22일 담양·화순 등 전남 일부 시·군에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이 무차별적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를 시·군에서는 겨울철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는 멧돼지, 멧비둘기, 꿩 등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규정, 구제허가를 내줘 사실상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협조요

특히 일부 밀렵꾼들은 농작물 피해를 조작해 시·군에 신고한 뒤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겸하고 있다. 유동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불법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가 포획허가를 날발하면서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아 야생동물이 무차별적으로 포획되고 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광주지검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预报 07시 38분  
해진 17시 25분

일预报 03시 47분  
달진 14시 03분

### ‘영하 추위’ 계속

가끔 구름 많고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때 눈이 온 뒤 개겠다.

광주	흐린 뒤 맑음	-3/6°C
목포	구름많은뒤 맑음	-2/6°C
여수	맑음	-2/7°C
완도	맑음	-1/6°C
구례	맑음	-5/6°C
해남	맑음	-4/7°C
장흥	맑음	-5/7°C
고성	맑음	-4/9°C
순천	맑음	-5/6°C
영광	구름많고 한때 눈	-4/6°C
전주	맑음	-2/7°C
전주	흐린뒤 맑음	-4/6°C
남원	구름많은뒤 맑음	-6/6°C
흑산도	구름많은뒤 맑음	1/6°C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번다	서~북	1.0~2.0m	목포	11:28 03:59
면번다	서~북	1.0~2.5m		23:15 17:02
남해 서부 일번다	북서~북서	1.0~2.0m	여수	06:41 12:48
면번다	북서~북서	1.0~2.5m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날씨								
최저/최고	-2/7	-2/5	-4/6	-2/8	-1/9	0/7		

##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 광주·전남 음식점 첫 적발

돼지고기, 막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100m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음식점이 첫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A음식점 업주인 K 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K씨는 미국산 돼지갈비 45kg, 캐나다산 14.5kg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해 찜, 찌개용으로 조리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베푼 자는 火宅 벗어나는 길 열 것”

### 법전 대종사 신년 법어

불교 조계종의 종정인 법전 대종사는 “지혜광명을 이루어 사바(속세)의 번뇌를 일깨우는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면서 “(베푼 자는) 치우친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현란한 가운데에서는 젖지 않고 앉을 것을(偏處不逢, 玄空不坐)”이라고 덧붙였다.

원불교의 경산 종법사는 “도덕을 부활하자”는 제목의 신년 법어를 통해 “본심을 회복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원칙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정 혜조 스님도 신년 법어에서 “일체중생이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리기사들 항의 집회

광주 대리기사협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대운전업체 앞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제도, 보험료 대폭削减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회원수 400여명인 광주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출범했다.

/워직령기자 jwvi@kwangju.co.kr

광주 대리기사협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대운전업체 앞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제도, 보험료 대폭削减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회원수 400여명인 광주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출범했다.

/워직령기자 jwvi@kwangju.co.kr

## 봉/선/동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 승년회예약접수중 돌잔치,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룸, 50석×2룸 완비)

아이엘리시아 고객 입맛은 요리하는 우리를 항상 긴장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리를 먹을 줄 아는 미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서비스로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튼튼한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이엘리시아 회원 가입 즉시 5,000포인트 자동 지급  
자세한 사항은 www.ielysia.com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류 성 호

